

삼성, ‘이건희 동행철학’으로 이어가는 나눔의 손길

디지털시티서 ‘나눔의 날’ 행사
23개 관계사, 임직원 11만명 참여
2주간 키오스크 기부 금액 3.5억

“삼성 임직원의 기부는 단순 지원이 아닌 희망의 시간을 선물해준 것입니다.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소희 양의 어머니)”

올해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4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삼성이 기부와 대면봉사 등의 활동을 하며 ‘이건희 동행철학’을 연말까지 이어가고 있다.

삼성은 14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디지털홀에서 ‘2024 나눔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전 관계사에서 진행한 ‘나눔워크’를 결산하고 봉사·기부 등 일상 속 나눔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삼성 임직원들은 나눔워크 기간 동안 나눔키오스크를 통한 기부를 비롯해 각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서울캠퍼스에서 교육생들을 위한 특강과 멘토링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 지역 사회 대면봉사,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캠페인 등에 참여했다. 참여 임직원 수는 23개 관계사 총 11만 여명에 이른다.

올해는 삼성전자 해외 법인도 처음 동참해 임직원들이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와 기부에 나섰다.

삼성 관계사 임직원들이 2주간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총 3억

5000만원이다. 당초 아동 1인당 1000만원씩 총 2억원을 기부한다는 목표였는데 1억원 넘게 초과 모금된 것이다. 나눔키오스크는 사원증을 기계에 대면 한 번에 1000원씩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기부 대상은 희귀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환아 등이다. 특히 올해는 나눔키오스크가 설치된 미국·중국·인도·태국·베트남 등 5개국의

9개 삼성전자 법인 임직원들도 지역 사회 아동을 위해 기부에 참여했다.

삼성 관계사 대표이사(CEO) 등 주요 경영진들도 봉사활동에 나섰다.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2일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서울 캠퍼스에서 교육생들과 만나 ‘미래와 도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교육생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등 멘토링을 했다. 후원학 삼성생명 사장은 지난 13일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순국선열에 참배하고 묘역 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삼성리서치아메리카 임직원들은 지난달 말 현지 학교와 NGO 등 약 50개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진로 멘토링 ▲학교 일일교사 ▲무료 급식소 배식 지원 ▲지역 사회 환경 개선 등에 참여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CJ 글로벌벤처스 2기’ 데모데이 성료

글로벌 진출이 유망한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파트너 매칭을 통해 사업확장(스케일 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CJ 글로벌벤처스 2기’의 톱3 스타트업이 최종 선정됐다. /CJ



SK바이오사이언스, 과기부 장관상 수상

SK바이오사이언스는 14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바이오미래포럼’에서 시험·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외대-e스포츠협회, 인재양성 협약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는 12일 서울 캠퍼스 이덕선 회의실에서 한국e스포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e스포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인하대, 개교 70주년 역사 돌아보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지난 13일 개교 70주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토크 “하와이·인하공원”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하대는 총동창회와 함께 하와이·인하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개교 70주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인하대가 개교하는 데 누구보다 큰 힘을 보태준 하와이 교포를 기리기 위해서다. /인하대

인사

◆한일출당스 ◇한일출당스 ▲정길영 상무보 ◇한일시멘트 ▲오해근 전무 ▲전재철 전무 ▲이자규 상무 ▲선영현 상무 ▲김광유 상무보 ◇한일산업 ▲기정훈 상무보 ▲서명은 상무보 ◇한일개발 ▲박태진 상무보

부음

▲안병욱씨 별세, 이택구(화성시 소통행정국장)씨 부부상=14일, 용인장례식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1978-20) 301호, 발인 16일, 031-276-4001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中企업계, 나눔 행사 열고 사회적책임 실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나눔 페스타 300여사, 생활용품 등 15만점 후원

중소기업계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나눔 행사를 열고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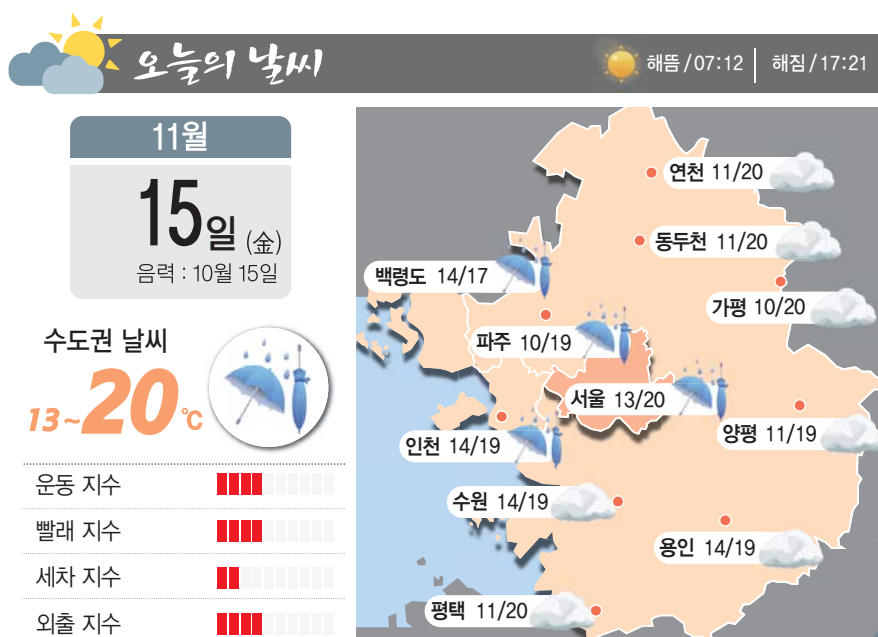
이는 중소기업계의 자발적인 후원물품을 모아 지역 소외계층에게 사랑과 온정을 전달하는 연말연시 중소기업계 대규모 나눔문화 축제다.

행사에는 300여 개의 중소기업이 후원한 15만점 상당의 생활용품, 아동도서, 주방용품 등 우수한 제품들이 현장을 가득 채워 풍성한 사랑나눔 분위기를 만들었다.

나눔 페스타 개막식에서는 중소기업 CEO와 업종·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부금 전달과 ▲우원식 국회의장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저명인사 및 유명 연예인, 스포츠스타의 애장품 경매를 진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해 침체된 소비 분위기를 전환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비용이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지원비용으로 이어지는 나눔축제의 현장”이라며 “앞으로도 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 장애인 접근성 개선 커뮤니티 개설

아이디어 나누는 ‘볼드 무브’ 운영
시각·지체 장애인 1기 참가자 모집

LG전자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전인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의 일환으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

LG전자는 장애인이 가전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며 불편했던 점을 공유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새로운 커뮤니티 ‘볼드 무브(Bold Move)’를 운영한다. 14일부터 19

일까지 시각·지체 장애인 대상으로 커뮤니티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볼드 무브는 ‘용기 있게(Bold) 실행하다(Move)’라는 의미로, 장애인이 자신의 불편함에 대해 주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변화를 만드는 용기를 갖자는 뜻이다. 참가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3개월동안 제품을 창의적으로 바꾸거나 변경하며 접근성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국토요타, 13년째 이어진 ‘이웃사랑’

18톤 김장 김치로 취약계층 온기 전달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달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 13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4 토요타·렉서스 사랑의 김장나눔’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약 13년째 지속하고 있는 ‘2024 토요타·렉서스 사랑의 김장나눔’에는 한국토요타자동차와 전국 토요타·렉서스 공식 딜러 약 300명이 참여했다.

‘사랑의 김장나눔’은 한국토요타자

자동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직접 김장 김치를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1년부터 약 300명의 전국 토요타·렉서스 공식 딜러사 임직원들이 동참해 서울·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의 복지관 및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에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은 한국토요타자동차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기획해 전국 11개소 복지관 및 ‘안나의 집’에서 김장 김치 약 18톤(약 6140포기)을 담갔다. /양성운 기자 ysw@

하이트진로, ‘100주년 환경 프로젝트’ 완료

국내 최대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확대 기획한 환경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전날 100주년 기념 ‘맑은 강, 하천 만들기’ 마지막 4차 활동을 경기도 이천공장 인근 북한천에서 실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천공장 이재복 공장장을 비롯한 이천공장 임직원과 이천시청, 이천시 부발읍, 이천시 이장단

협의회, 이천환경운동연합, 이천상공회의소, 이천여주환경부서협의회 및 이엔생명나눔운동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북하천 인근에 있는 쓰레기 수거 활동도 병행하며, 산책로 주변에는 환경보존 캠페인 현수막도 설치해 지역민들이 쓰레기 없는 북한천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